

## — Sun-113 —

복수가 발생한 재발성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의 치료에 있어 cyclophosphamide의 효과 1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학교실  
박영정\*, 김현수, 박혜경, 주혜원, 나현희, 김상현, 박원도

**서론:** 신이식후 재발한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의 치료는 확립된 바가 없기에 국내 및 국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가 시도되어왔다. 또한 재발성 신증후군에서 복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로 확립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이식후 발생한 재발성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을 가진 환자에게 cyclophosphamide의 사용으로 복수가 감소한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995년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고 1998년부터 혈액투석하여 지내다 1999년 신이식을 받은 50세 여자환자가 2002년 혈청 크레아티닌치 상승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때 신조직검사 결과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의 재발 판정을 받았다. 이후 cyclosporine, steroid, mycophenolate mofetil을 복용하며 조절해 오다 2003년 8월부터 소변량이 더욱 감소하며 복부팽만, 호흡곤란 보여 입원하였다. 신체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고 이때 간경변이나 심부전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이뇨제를 증량하며 관찰했으나 복수가 더욱 증가하여 2003년 9월부터 mycophenolate mofetil을 끊고 cyclophosphamide 1.5mg/kg 을 복용시켰다. 약물 치료 전 몸무게가 57kg에서 cyclophosphamide 사용 후 11개월 뒤인 2004년 8월, 45kg 까지 감소하였고 신체검사상 복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신증후군 환자들 중 12%에서는 복수가 관찰되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치료 또한 확립된 바가 없어 여러 가지 치료가 시도되어 왔다. 본 증례는 복수를 동반한 재발성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에서 cyclophosphamide를 사용하여 복수 조절이 된 경우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성 사구체 신염에서 복수가 동반되었을 때 cyclophosphamide가 복수 조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 Sun-114 —

복막염을 주소로 내원한 복막투석환자의 교액성(strangulated) 복벽탈장 1례

아주의대 내과, 외과\*, 해부병리과†  
정희선, 송영수, 정혁준, 김홍수, 신규태, 윤태일\*, 임현이†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에서 복벽 탈장은 복막투석과 관련한 감염 이외의 합병증으로 특히 장감돈 교액(strangulated incarceration) 및 폐색이 동반될 때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저자들은 복막 투석을 시행중인 66세 여자 환자가 복통과 흔탁한 투석액을 주소로 내원하여 교액성 복벽 탈장을 진단받은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당뇨병성 신증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 진단받아 복막투석을 시작하였는데 내원 2일전 발생한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배출 투석액의 백혈구수는 110/mm<sup>3</sup> 검출되어 복막염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와 고식적 치료를 하며 투석액 배양 검사상 배양된 균은 없이 증상의 호전을 보이다가 내원 5일째 복통의 악화과 투석액 검사상 백혈구 3200/mm<sup>3</sup>, 음식물이 검출되어 장천공 의심하에 시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교액성 탈장 소견있어(사진) 응급 개복술을 실시하였다. 투석 도관의 반흔을 통해 회장 일부분이 교액되어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혈액투석 유지요법으로 전환하였으나 패혈증과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국내에서도 장기 투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에 흔히 동반될 수 있는 복막염의 감별 진단시에는 복벽 및 서혜부 탈장 등의 물리적 합병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